

朝鮮朝 樓亭文學 研究

共同研究 金戊祚 鄭景柱 孫貞姬

目 次

I. 序 論	3-3 鄉居自樂의 價値
II. 樓亭文學의 生成背景	3-4 風詠宴樂의 情趣
2-1 樓亭空間의 特性	3-5 觀物靜養의 興懷
2-2 樓亭經營의 主體와 樓亭機能의 變貌	3-6 保守記念의 傳統
III. 樓亭文學의 內容	IV. 樓亭文學의 성격과 意義
3-1 樓亭文學의 概觀	V. 結 論
3-2 與民同樂의 理念	

1. 序論

조선조 양반 사대부 계층의 문학을 특징지워 山林文學 또는 江湖文學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치권력의 암투가 치열한 官路의 분란에서 벗어나 安貧樂道를 표방하여 명철보신하고 산림과 강호에 悠悠自適하면서 吟風弄月하거나 讀書講學하는 사대부의 취향이 주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江湖 山林의 문학이 양반이라는 신분적 배경과 지방의 중소지주라는 경제적 토대를 기반으로 성립된 것이라는 데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出仕入處하는 관료계층이거나 鄉權에 관계하는 鄉班으로서 그들의 특권을 향유하는 가운데 安貧樂道와 逍遙自適을 노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樓亭은 조선조 양반 사대부 문화의 位相을 가장 잘 드러내는 標識이다. 일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소유한 양반 사대부들이 그들의 交遊燕息의 장소로 건립하여 강호와 산림의 자연을 노래하며

※이 논문은 1986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하였음.

휴양하는 곳이 樓亭이었다. 樓亭의 굉장한 위용이 學士大夫와 士族의 신분적 권위를 더해 주기도 하였거니와 이를 중심으로 그들의 문학 저술이나 交遊 講學 등의 중요한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樓亭文學이라고 이름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樓亭文化에 대하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그 의의가 논의되어 왔다.

柳鐸一교수는 일찌기 '嶺南地方의 典籍文化 연구'라는 논문을 통하여 典籍 간행의 基底로서 조선조 양반 문화가 지방 각처의 齋舍와 亭子를 중심으로 구심체를 형성하였음을 논하였다.

*이런 傳記譜牒 및 文集類가 지나치게 일방으로 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祖先崇拜>, <門閥重視>의 바탕 위에 王亂 이후 書院叢設에 대한 禁令은 그들에게 齋舍와 樓亭의 발달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 齋舍나 樓亭經濟에 편승하여 소위 <尙賢崇祖>의 미덕 아래 傳記譜牒 및 文集類의 典籍 간행이 성행했던 것이다. 이로 볼 때 李朝文學의 핵심은 “樓亭文化”라 볼 수 있겠고 따라서 李朝의 문학도 樓亭文化의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¹⁾

이 논문에서 그는 조선조 양반문화를 典籍의 간행활동으로 가늠해 볼 때 樓亭이 그 중핵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러한 樓亭은 子弟教育의 場으로, 優遊玩賞하는 別莊으로, 門中會議나 派會의 장소로, 賓客을 접대하는 장소로서, 尙賢崇祖하는 조선조 사대부의 거점이 되었음을 말하고, 그 뒤 樓亭文學의 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樓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문학활동을 樓亭文學이라 해서 가능할 것이니, 여기 굳이 영남 규방여인들의 樓亭을 배경으로 하여 지은 규방가사는 그만 두더라도 현재까지도 경북지방에만 잔존한 樓亭이 2천여 개소이며 이로 인해 이루어진 樓亭詩만 해도 1900여 수가 된다고 하는 사실로 보아도 樓亭文學의 가능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하겠다.²⁾

1) 柳鐸一, 嶺南地方의 典籍文化 研究 pp. 76~77,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0.

2) 柳鐸一, 樓亭과 李朝文化, 釜大新聞 1975. 1. 21. 부산대학교

金錫夏교수는 ‘樓亭記 小考’라는 글을 통하여 樓亭은 士類階層이 宦路에서 退居하여 仕宦 길의 風霜 曲折과 作爲의 생활을 버리고 歸鄉하여 자연을 觀照하면서 尙古 蘊蓄 讀書 修養하는 場으로서 歸去來한 士類 또는 儒者들의 정신적 안식처이며, 樓亭記詩는 그들의 인생관 처세관 그리고 사상과 정서가 함축되어 있는 문학이며, 그 속에는 安貧樂道 樂天知命 사상과 더불어 隱逸과 仙的幻入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하였다.³⁾

그리고 1984년부터 全南지방의 樓亭조사를 통하여 樓亭記文과 題詠을 집성하는 작업을 즐기치게 계속하고 있는 박준규교수는 ‘名類人士들이 출입하며 樓亭生活을 즐기며 그곳에서 생활체험과 시적 상상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樓亭文學의 연구대상이라고 하면서 樓亭詩文 이외에 시조와 가사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⁴⁾

이와 같은 논의들은 비록 단편적인 서술이나 지적에 그치고 말았지만 樓亭文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樓亭文學에 대한 연구의 실마리를 제시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논의들을 토대로 조선조 영남지방의 樓亭文學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樓亭文學에 대한 보다 진진된 개념을 얻고 나아가 조선조 사대부 문학에서 樓亭文學이 가지는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상 樓亭의 성격과 樓亭에서의 생활을 가장 평이하게 서술하는 樓亭記文을 중심으로 樓亭이라는 공간이 사대부들의 휴양을 위한 특별한 공간임을 논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樓亭文化의 형성과정에서 사대부 계층의 변모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그 속에서 사대부의 신분을 향유하고 유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들이 성립될 수 있었음을 논하고, 이어서 그러한 바탕에서 이루어진 문학적 형상을 검토함으로써 樓亭文學의 내용이 가지는 특성과 그것의 일정한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는 樓亭文學에 대한 개괄적인 인식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3) 金錫夏, 樓亭記 小考, 국어국문학 62, 63, 1973, 국어국문학회

4) 朴俊圭, 息影亭의 창건과 息影亭記, 湖南文化研究 14,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85, 및 羅州地方의 樓亭題詠 調査研究(羅州地方 樓亭文化의 綜合的 研究 1988,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참조

어서 수많은 樓亭의 記文과 題詠을 일일이 다 예로 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누정문학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몇몇 요소에 대하여 그 특징을 잘 나타내는 한정된 수의 記文과 題詠을 표본적인 예로 취하였다. 다른 樓亭의 詩文들은 대개 여기에 거론된 내용의 범주와 중복되거나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는 아니할 것으로 생각된다.

2. 樓亭文學의 生成 背景

2-1 樓亭空間의 특성

樓亭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東國輿地勝覽 이래로 각종의 地誌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全南지방의 樓亭을 다년간에 걸쳐 조사하고 있는 박준규교수는 樓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樓亭이란 樓閣과 亭子の 畧稱이다. 정자를 앞세워 亭樓라고도 하나 輿地勝覽의 樓亭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樓, 亭, 堂, 臺, 閣, 軒, 廳, 館, 房 등을 범칭한 개념으로 일반화 되어 있다. 이의 여러가지 중 樓는 사방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벽이나 문을 두지 아니하고 높이 지은 다락식의 큰 집이다. 높다랗게 지은 집을 閣이라고 하여 樓를 또한 樓閣이라 하고 樓觀이라 하기도 한다. ……樓亭에 비하여 亭子는 작은 건물이다. 이 역시 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만으로 된 집이다. 일반적으로 놀거나 휴식할 장소로서 산수 좋은 높은 곳에 세워져 있다. 이를 亭閣 또는 亭樹라고 한다. ……원래 樓亭의 개념으로 보면 이는 房을 전제로 한 건물이 아니지만 그 기능이 다양화되면서 講學所, 혹은 齋室의 소용으로 방을 둔 樓亭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堂, 房, 齋라 하는 건물에 樓亭으로 처리할 것이 적지 않음은 바로 이 때문이다.⁵⁾

樓亭건축의 실상을 현지답사를 거쳐 파악하고 서술한 것이기에 樓亭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의 정리로 받아들여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東國輿地勝覽이나 각종 地誌의 樓亭條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위에 든 樓, 亭은 물론 堂, 齋, 閣, 臺, 軒, 庵, 館, 廳, 墅, 舍, 窩, 室, 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보면 단순히

5) 朴俊圭, 韓國의 樓亭 考, 호남문화연구 17, 1987.12,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樓, 亭이라는 접미사가 붙는 것으로만 樓亭의 범위를 한정하여 말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참고로 영남지방에 한하여 東國輿地勝覽과 嶺南志, 嶺南邑誌, 慶尙道邑誌 등 地誌의 樓亭條에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난 명칭의 통계를 보이던 다음과 같다.

樓	亭	堂	齋	閣	臺	庵	軒	精舍	窩	館	廡	墅	巖	門
283	896	184	188	16	34	12	21	42	4	4	1	2	1	1

여기에서 庵은 字典에 圓屋曰庵이라 하였으니 지붕을 둥글게 한 소략한 집을 이름이요, 廡는 說文에 秋冬去春夏居라 하고 詩小雅 中田有廡의 鄭箋에 農人作廡焉 以便田事라 하였으니 농막으로 쓰는 보잘 것 없는 집이라는 말이요, 窩는 穴居의 움집으로서 別墅를 謙稱함이니 모두 사대부의 別業을 스스로 낮추어 칭한 말이다. 그리고 軒은 대청을 말함 이요 室은 房室을 말함이니 건물 중의 한 부분을 이름이요, 閣은 樓의 별칭이니 樓亭에 의례 이러한 칭호가 따로 붙는 것이므로 특별히 구별 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堂, 齋, 臺, 精舍와 같은 것이 樓, 亭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堂은 본디 '自半以前虛之謂堂 半以後實之謂室'⁶⁾이라 하여 건축물의 앞쪽으로 벽을 쌓지 아니하고 트여 있는 부분을 이름이다. 그러므로 亭子이면서 堂이라고 하여 謙稱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霞鷲堂은 읍 서쪽 霞由里에 있다. ~仁祖가 潛邸 때에 微行으로 이곳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뒤 그집 아들 之英이 經筵 入侍하였을 때 上께서 이르기를, '너희 집의 霞鷲亭은 강산의 승취가 있는데 어찌하여 嬌櫺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였다. '士庶人의 私室이라 감히 하지 못합니다.'라고 대답 하자, 上께서 이르기를, '亭觀과 私室은 다름이 있으니 부연을 내어도 좋으리라'라고 하였다.⁷⁾

이와 같이 일반적인 第宅의 주거공간이 아닌 亭子를 堂이라고 하는

6) 朱熹, 儀禮釋宮, 夫子大全 卷六十八

7) 嶺南誌 卷二 達城郡 樓亭條 霞鷲堂

霞鷲堂 在郡西霞山里 李鍾文建. 仁祖潛邸時 嘗微行過之矣, 後其子 之英以經筵入侍. 上敎曰 爾家霞鷲亭 有江山之勝 不爲嬌櫺何也. 對曰 士庶私室 不敢爲也. 上曰 亭觀與私室 有別 改葺可也.

것은 士庶人으로서 別業의 호사스러움을 감당할 수 없어 겸손함인 것이다.

이에 비하여 齋와 精舍는 약간 의미를 달리한다. 齋는 본디 書齋와 齋宿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道士나 隱士가 閑居하며 수양하는 곳을 일컫기도 하고, 學校의 생도들이 居接하여 학업을 닦는 곳을 말하기도 하며, 한편으로 墓祀를 위해 齋宿하는 곳을 또한 齋라고 한다. 精舍는 또한 書齋나 僧舍와 같이 정신을 수양하는 곳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閑居平心 以養心慮 若於此而齋戒也 故曰齋'라 하듯이 心神을 靜養하기 위해 조용한 곳에 마련하여 별도로 거처하는 곳을 齋나 精舍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齋나 精舍가 學校條나 祠院條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樓亭條에 들게 된 것은 그것이 公共의 시설로 일반인에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私家의 사사로운 別業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조선후기에 들어 樓亭의 기능이 변화하면서 書齋나 齋宿所로서의 기능을 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臺와 같은 곳은 본디 '土高曰臺 有水曰榭'라 하여 지대가 약간 높은 곳에 있어서 조망하기 좋은 곳을 臺라 하고 그 중 물가에 위치한 것을 榭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비와 햇빛을 가리기 위한 건물을 시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樓亭과 다르게 없는 것이다.

위에 든 여러가지 용어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양반 사대부들이 일반적인 第宅 내부의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용도를 위해 별도로 설치되는 遊休시설을 가리킨다는 점은 공통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별도의 유희시설을 경영하는 데는 상당한 경제적 여건이 요구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그러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본디 樓는 城壘나 門樓와 같이 重層의 다락으로 건축하여 멀리 조망하는 곳으로 시작된 것이다. 說文에 樓는 重屋이라 하였으니 重層의 건물을 이룸이요, 爾雅에 '門上高樓以望'하는 곳을 譙라고 하였으니 이는 城壘를 이룸이요, 釋名의 注에 '周置兩觀以表宮門 其上可居 登之可以遠觀故謂觀'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門樓를 이룸이다.

亭은 또한 도로변의 여행객을 위한 휴식처에서 근원한 것이었다. 風俗通에 ‘亭 留也 行旅止宿之所’라 하였고, 釋名에 ‘道路所舍 人所停集’이라 하였으며, 說文에 ‘民所安定也, 亭有樓’라 하였으니 건물의 크기에 관계 없이 여행객들이 숙박 휴식할 수 있도록 시설한 곳을 亭이라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樓와 亭의 字意的인 해석은, 樓亭을 짓고 거기에 생활하였던 사대부들의 樓亭에 대한 인식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드러난다.

- ① 어떤 이는 말하기를, 權豪富貴들이 亭榭에서의 遊觀의 樂을 즐기는 것을 사람들이 혹 비단하는데 하물며 승려로서 이런 일에 힘을 쓰는 것은 浮薄하고 사치스런 것으로서 道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한다.⁸⁾
- ② 樓에 거처하는 것은 담담한 것을 풀고 정신을 상쾌하게 한다. 보기 좋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 큰 유익함이 있다.⁹⁾
- ③ 池臺와 坡榭는 遊觀하는 곳이다. 세상을 다스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마는 국가의 治亂의 자취와 州縣이 興廢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다. 조정이 清明하고 상하의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여 관리는 그 직분을 즐기고 백성은 그 생업이 안정된다면 池臺坡榭가 아니고서야 어찌 太平의 성대한 모습을 형용하겠는가.¹⁰⁾
- ④ 무릇 樓觀과 臺榭를 시설하는 것은 그 樂을 붙이기 위해서이다. 樂은 형상이 없어서 어디에다 부친 이후에 나타난다. 이른바 樂이란 사람들이 제 스스로 얻는 것이지만, 그 樂을 확대한다면 萬民이 나와 같은 형제이고 만물이 나와 관계되는 것이 되어 그 속에 녹아들어 어르지 못할 곳이 없을 것이다. 다만 한갓 遊觀만으로 그치는 이는 그 樂이 험소하지 않겠는가.¹¹⁾
- ⑤ 가까이 玩賞하면 셋은 듯이 정신이 맑아지고 멀리서 바라보면 마음이 환달하여 변화하고 움직이는 수많은 모습들이 모두가 遊客의 興을 펼 수 있을

8) 李奎報, 赫上人凌波亭記, 東文選 卷六十七.

或曰 權豪富貴之人 有喜爲亭榭遊觀之樂 人或非之, 況浮屠而務爲此者 其無奈幾於誇浮淡侈 而戾於道也.

9) 李穡, 靈光新樓記, 東文選 卷七十二.

樓居 所以陶埴鬱 爽精意 非以觀美 於人有大益

10) 李穡, 水原府客舍池亭記, 東文選 卷七十四

* 池臺坡榭 遊觀之所也, 於世道 何與焉. 然國家理亂之跡 州縣興廢之由 於是乎在. 蓋朝廷清明 上下豫安 卽吏樂其職 民安其生 非池臺坡榭 何以形容太平之盛觀哉.

11) 李崇仁, 星州夢松樓記, 東文選 卷七十四

* 凡樓觀臺榭之設 所以寓其樂也. 樂無形也, 必寓夫彼 而後形焉. 所謂樂者 人自得之 而推廣其所樂卽 民同胞 物吾與 薰蒸融液 無所不至. 彼徒遊觀而已者 其爲樂 不其狹矣乎.

만하여 답답하게 막힌 기운을 풀어주고 일시 心懷를 너르게 하여 賓主의 즐거움을 이루도록 하는 것으로 호수만한 것이 없다.¹²⁾

여기에 든 예문은 대개 고려와 조선 초기의 樓亭記文에서 취한 것이다. 어느 글에서나 樓亭이 일상생활의 생산적인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富貴權豪의 사치스런 치장이거나 태평성대를 수식하는 儀仗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樓亭을 시설하는 것이 遊觀, 즉 놀고 구경하기 위한 것이며 宴息의, 즉 빈객을 맞이하여 접대하거나 興을 돋우고 樂을 부치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遊觀宴息을 위한 공간이 樓亭인 것이요, 동시에 일정한 경제적 신분적 과시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遊觀宴息이란 樓亭이 遊休공간인 이상 거기에서는 필요하다면 다양한 여러가지 활동들, 예컨대 讀書吟詠한다든가 빈객을 맞이하여 詩酒로 수작한다든가 하는 이외에도 특정한 집단의 집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군사적 목적으로 將臺나 展望臺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勸農 觀稼의 감독처로, 또 모진 폭양이나 세찬 비바람을 피하는 임시대피처로 활용될 수도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遊觀할 만한 자연이나 人文의 景勝이 있고 宴息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한적하면서 다듬어진 시설을 갖춘 곳이 樓亭공간이 되는 것이다.

보고 즐길만한 景勝이 있고 편안하게 설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그러한 곳은 평범한 장소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분잡한 현실에서 벗어난 특별한 구역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樓亭공간은 脫俗의 仙境에 종종 比擬된다.

*永嘉는 예로부터 山水가 동남지방에서 특이하게 빼어난 곳이라 칭송되는

12) 金安國, 安東 望湖樓記, 慶尙道邑誌 p136. 韓國地理誌叢書1 亞細亞文化社 1982.

* 近玩泐然而神清 遠望爽然而意豁 變態流動千百狀 皆足以發舒遊客之興 宣暢煙鬱之氣 曠然放懷於一時 而能成賓主之歡者 莫尚乎水. 以此一邑眺觀之美 不于山而萃乎南湖. 因勝之美 而構樓於湖之北岸者 日映湖樓. 不知誰之建也. 蓋欲以接王人而樂賓客 節勞逸而慰羈旅 而盡敬禮之義.

대 낙동강 일대가 가장 으뜸이요, 낙동강 수백리에 맑은 못과 긴 여울 기이한 바위와 산록이 군데군데 빌처럼 배치되어 있지만 河回 한 구비가 으뜸이다. 河回의 아래 위로 凌波 遠觀의 臺와 玉淵 翔鳳 遠志의 精舍, 그리고 桃花遷 萬松洲 등이 모두 신비한 절경이라 바라보면 마치 神仙의 異境인 것 같은데 이 정자는 더욱 아름답다.¹³⁾

大山 李象靖(1710~1781)이 河回의 謙巖亭을 형용한 말이다. 이러한 표현은 대개 어느 樓亭에서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樓亭이 위치한 곳만이 絶勝이 아니라 樓亭에서 바라보는 景勝 또한 산천의 名區를 장악하여 樓亭과 산천이 서로를 粧點하여 인간의 어지러운 티끌을 여의고 仙境에 幻人하였다고 묘사된다.

山谷이나 江岸의 한적한 곳에 위치하는 私家의 樓亭에서 보이는 것은 산천의 자연景觀이 遊觀의 주된 대상이겠지만, 官府가 위치하여 人煙이 번화한 邑內에 위치한 官家의 樓亭에서 보는 人文이 또한 仙境에 못지 않은 태평성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축석루의 규모는 웅장하고 활짝 트여서 시야가 아득하게 펼쳐지는데 강이 그 아래로 흐르고 못 산봉우리가 밖으로 벌여 있으며 여염집들과 들판이 그 사이로 어룬거리며 푸른 절벽과 긴 모래톱이 그 곁으로 잇대어 있다. 사람들의 기상은 그로 인하여 맑고 습속은 그로 인하여 후하며, 농부나 蠶婦나 부지런히 일하며 孝子와 慈孫들이 정성을 다 기울이고, 울며 날아오르는 새나 헤엄쳐 다니는 고기들까지 온 사방에서 제 자리를 얻은 것들이 모두 불만하다.¹⁴⁾

여음이 즐비하고 풍속이 순후하며 桑麻雨露의 평온한 情景 가운데 만물이 각기 自得한 모습을 짓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그러한 景物을 느

13) 李象靖, 謙巖亭記, 大山集 卷六

*永嘉古稱多名山水 爲東南奇偉秀絕之地 而河流一帶 爲之最, 緣河數百里 明澤修瀨 奇巖異麓 往往錯置星列 而河回一曲爲之首. 河回下上 凌波遠觀之臺 玉淵翔鳳遠志之舍 與夫桃花遷 萬松洲諸勝 蓋靈真絕特 望若神仙異境 而惟斯亭爲尤美.

14) 河齋, 蠶石樓記, 嶺南誌 卷五十三

樓之制 宏敞軒豁, 俯臨渺茫 長江流其下 重峰列于外 閭閻桑麻 隱映乎其間 翠壁長洲 連接乎其側, 人氣以清 習俗以厚 農夫蠶婦 服其勤 孝子慈孫竭其力, 至若禽鳥鳴翔 魚鼈遊泳 物於一區 而得其所者 俱可觀矣.

곳하게 遊觀하는 사대부로서는 治國安民의 본연의 직무와 관련하여 스스로의 遊樂을 정당화 하는 자기도취적 억측일 수도 있다. 樓亭이 탈속적인 情趣를 향유하기 위한 휴식의 공간이고 보면 그곳에서 遊樂하는 자신의 입지는 물론 관찰되는 대상들도 그러한 탈속적 정취에 이입되어야 하겠기에 대상물의 현실적인 실정이 어떠한든 그들 자신의 의식 속에서는 태평성대의 평화스러운 정경으로 點畫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樓亭은 양반 사대부의 遊觀宴息의 공간으로서 일정한 경제적 신분적 배경 하에 유희시설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한 공간의 특성은 단순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 하에 놓인 사대부의 문학정신에도 밀접하게 관여하여 자연과 인문의 경관에 대한 사대부들의 미적 인식과 문학 창작의 태도가 일정한 방향, 예컨대 仙的 幻入과 物我一如의 관념적 투사와 같은 경향을 가지게 하였던 것이라 할 것이다.

2-2 樓亭經營의 주체와 樓亭 기능의 變貌

樓亭은 애초에 공공의 건물로서 門樓나 譙樓로 시작되었던 것인데, 周代의 제도에 宮門에다 兩觀을 설치한 것이나 城壘에 譙樓를 둔 것이 그것이다. 궁궐의 樓閣으로 축조되기로는 吳王 闔閭가 白門樓를 세우고 越王 句踐이 飛翼樓를 세웠다는 것을 비롯하여 漢나라 武帝가 黃帝의 五城十二樓에 의탁하여 井間樓를 세우면서 점차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이 때에는 신선들이 樓에 산다 하여 樓閣을 세워 유람하는 것이 범속한 일이 아니며 王公貴人의 일로 여겨졌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樓亭은 王家의 宮室의 일부로서 처음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 개로왕이 즉위원년(서기455년)에 宮室 樓閣 臺榭의 토목공사를 일으켰고, 신라 炤知王이 즉위 10년(서기488년) 정월에 天川亭에 행차하였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增補文獻備考의 宮室條에 기록된 바를 참조하면 백제에는 東城王 때 臨流閣, 武王 때 望海樓 등이 있었고, 신라에는 文武王 때 세운 鼓樓, 景德王 때 靑淵宮 屏村宮을 각각 造秋亭 玄龍亭으로 바꾸었으며 玉寶高가 遊樂하였다는 寒松亭이 있었고, 元聖王 때의 望思樓, 文聖王 때의 鳴鶴樓, 三藏法師의 扁額을

걸어두었던 倚風樓 등이 있었다. 그리고 동문선에 전하는 최치원의 글 중에는 수창군에 八閣燈樓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고려조에 들어서는 국초에 王家의 儀鳳樓 神鳳樓 長源亭 등이 있었고, 13세기 경의 여러 시문에는 지방관아의 樓亭으로 珍島의 碧波亭, 驪興 淸心樓, 淸州 拱北樓, 安東 暎湖樓, 金海 披雲樓, 陝川 涵碧樓, 江陵 四仙亭 寒松亭 觀瀾亭, 星州 夢松亭 등이 나타나므로 각 지방의 관아나 숙소는 물론 城樓나 門樓 등 상당수의 樓亭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사찰에 樓亭이 많이 건립되어 있어서 평양 永明寺의 浮碧樓, 晉州 龍頭寺의 矗石樓, 密陽 嶺南寺의 嶺南樓, 울산 太和寺의 太和樓 등이 특별히 유명하였다. 공관이나 사찰의 樓亭에 이어 고려말 조선 초에 이르러서 官學이 크게 장려되면서 각처의 鄉校가 중건 중수되어 또한 門樓나 별도의 樓亭이 건립되었는데 그런 것은 李穀의 金海府鄉校 水軒記나 權近의 永興府學校記와 같은 글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궁궐이나 官府 學校 寺刹 등에서의 樓亭 경영은 각기 여러가지 필요성을 내세웠지마는, 王室과 公館의 위엄을 과시하고 遊觀宴息의 상쾌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데는 다름이 없었다.

*승려에게는 亭榭에서의 遊觀의 樂이 적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는 누구인가. 皇華의 使節과 이곳 저곳에서 오는 여행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곳에 유람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그들이 이곳에 소요하며 노닐때면 아마도 푸른 난새나 白鶴을 타고 우주의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 같으리니 白玉仙臺라고 어찌 더 말할 게 있겠는가. 유람하는 이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老禪師처럼 항상 거기 앉아서 맑은 경치를 마음껏 즐기는 이야 말로 靑蓮佛界와 이미 이웃이 되었다 하리라. 어찌 도에 어긋난다 하겠는가.¹⁵⁾

이규보(1168~1241)가 三岳山의 赫上人이라는 사람이 樓閣을 사찰의 경내에 건설하고 글을 청하자 써 준 내용의 일부이다. 고려조에 흥성한 불교사찰에는 門樓 鍾樓 鼓樓 燈樓 등 佛宇의 莊嚴을 치장하는 樓閣이 많은데 위와 같이 별도의 遊宴시설을 치장하였던 것은 使客과 貴人의

15) 李奎報, 赫上人 凌波亭記, 東國李相國集 卷二十四

*其誰謂 浮屠不宜有亭榭遊觀之樂乎. 自皇華星節 至于行路之東西者 莫不遊踐, 方其逍遙盤薄也 意若控靑鸞 跨白鶴 出乎八極之表矣. 何白玉仙臺之足道哉. 遊者尙爾 吾禪老之常宴坐 飽淸景者 想已與靑蓮佛界爲隣矣. 何謂戾於道邪.

宴樂에 대비하기 위함임은 물론이다.

중앙의 공관은 물론 지방의 관아에 부속건물로 營建되는 樓亭들은 官府의 위엄을 드러내면서 오가는 사신이나 관료들의 휴식처로 필요하였다.

* 상주는 낙동강의 상류에 위치하여 監司의 본영이 있고 동남 지방의 일대 도회이다. 皇華의 명을 받들어 정사를 돌보러 오는 빈객과 일본의 方物을 바치러 오는 사신들이 끊이지 않는데 죽령을 넘어가는 이는 삼분지 일도 아니되고 모두 冠縣을 거쳐간다. 상주는 그러한 길목에 있어서 높고 魁傑한 樓閣이 있어야 그 儀刑에 맞고 보기에도 웅장할 것이며 높이 치솟아 더위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風詠樓를 중수하지 않아서는 안될 까닭이다.¹⁶⁾

* 생각컨대 士卒를 부리고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올라가 관람할 장소를 만드는 것은 將官된 자의 시급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소란스런 시절에는 그것이 옳겠지만, 聖明의 시대를 만나 바다의 풍파가 일지 아니하게 되면 高明한 건물과 遊息할 장소가 없어야 그 어찌 升平의 기상을 치장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빈객을 대하고 군사를 점검하는 일이 없는 날이 없는데 빈객을 대하는 데는 獻酬하는 예절이 있고 군사를 점검하는 데는 훈시하고 사열하는 壯觀이 있는 법이어서 높은 樓閣 넓은 臺榭에서 맞이하고 제압하지 아니한다면 三軍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¹⁷⁾

金宗直(1431~1492)의 尙州風詠樓重修記와 合浦將星樓記에 나오는 말이다. 상주와 같이 지방을 다스리는 方伯과 守令이 있는 곳에서는 서울에서 공사의 업무로 내려오는 臣僚를 접대하거나, 官長이나 그에 준하는 인사들의 연회와 휴식처로서 官府의 樓亭이 경영되었거니와, 외국에서 오는 사신들을 맞이하여 문물의 응성함을 과시할 건물이 필요하며,

16) 金宗直, 尙州風詠樓重修記, 估舉齋文集 卷二

* 尙處洛水之上流 而爲監司之本營 實東南一大都會也. 皇華賦政之賓 日域獻琛之士 往來絡繹 踰竹嶺者 不能三之一 而率由冠縣 州當輻湊之交焉 宜其有崇樓傑閣 稱儀刑而壯觀瞻 抗高明而祛炎燹也 此風詠樓 不可以不重修也.

17) 金宗直, 合浦將星樓記, 估舉齋文集 卷二

* 意者 勞士卒 興土木 以成登陟觀玩之所 非爲將者之所急也. 雖然 在搶攘之時 則 可矣 遭值聖明 海波不揚 不有高明之具 遊息之物 其何以粉飾升平之氣象乎. 況賓軍之事 無日無之 賓有雍熙獻酬之節 軍有教閱蒐彌之觀 可無崇樓廣榭以迎候 控壓之 非所以示三軍之威重也.

또 軍營에서는 군대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이러한 웅장한 건물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또한 王朝의 문명시대를 구가하는 번성을 상징하는 징표라면 그러한 번성을 구가하고 향유하는 것이 인정에 합당할 것이라는 의견은 왕조에 충실하여야 할 관리들의 인식으로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遊宴할 장소를 마련하고 또 公館의 장엄한 위세를 도우기 위하여 樓閣을 부설한다는 것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학교는 실로 한 읍의 모범되는 곳이요 門樓는 선비들이 遊息하는 곳인데, 이 고풍에만 風化樓가 없으면 校堂을 엄중히 하고 주목을 받도록 하는 도리가 아니다. ~이 樓는 景物을 보기 위한 것도 아니며 遊讌을 위한 곳도 아니다. 그 이름과 의의를 돌이켜 본다면 어찌 海山이나 巖洞의 한가한 구역에 이름난 樓閣을 지어 기이한 경승을 다투어 자랑하고 騷人韻士들이 留連하며 吟賞하는데 그치는 것과 같겠는가. ~진실로 여기에 노닐며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朱夫子의 白鹿洞規와 張南軒이 岳麓의 학자들에게 바라던 바를 본받아 그것으로 몸을 닦고 주선하여 爲己의 공부에 힘을 쓰며, 臨眺玩樂의 뜻으로 舞雩에 바람직한 기미를 얻는다면 그로 인하여 점차 젖어들게 될 효험이 어찌 한 지방을 풍화하는데 그치지만 하겠는가.¹⁸⁾

孫思翼(1711~1794)의 昌原鄉校風化樓記에 나오는 말이다. 稼亭李穀(1298~1351)의 金海鄉校水軒記에도 여름철 빈객을 접대하고 登高賦詩하기 위한 樓閣을 향교 안에 시설하였음을 말한 바 있는데 그 본색은 조선후기에도 변함이 없었다. 게다가 고려조에는 학교가 황폐하였지만 鮮初에 들어 守令七事의 하나로 興學을 들어 권장하였으므로 一邑一校의 향교는 물론 書齋와 書院이 다투어 설립되어 지방 문화교육의 중핵을 이루고 鄉班들의 주요한 세력거점이 되었는데 그러한 점에서 학교, 특히 유학의 상징으로서의 先聖을 받드는 大成殿이 있는 鄉校나 儒賢을

18) 孫思翼, 昌原鄉校風化樓重修記, 竹園集 卷四

* 學校實一邑矜式之地 門樓爲多士遊息之所, 而是州之獨無風化樓 非所以重校堂而係觀瞻也. ~是樓也 非爲景物觀也 亦非爲遊覽之地也. 顧其名與義 豈止如海山巖洞等閑之區 名構傑閣 爭奇而鬪勝 騷人韻士之所留連 而吟賞而已者哉. ~苟能使遊於斯 學於斯 而倡率於斯者 庶幾倣失夫子之規 鹿 張南軒之望 岳麓學者 予以攝齊周旋 從事於爲己工夫 而以臨眺玩樂之義 做得風舞雩氣味則 其漸西浸漬之

모시는 祠宇가 있는 서원 또는 鄉賢祠는 장엄하게 장식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官府나 학교 사찰의 공공건물로서의 樓亭 건립은 대체로 그것을 사용하는 일정한 신분계층 일반에게 공유되는 것이어서 개인이나 가문의 사적인 전유물이 될 수는 없었다. 樓亭이 사가에서 사사로운 필요에 의해 건립되는 것은 그만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를 가진 계층이 성장함으로써 가능하였을 것이니,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중엽의 詩文에 富貴權豪들이 누정을 경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樓亭은 애초 서울에 근거를 둔 매우 한정된 富貴權豪들이 그들의 저택 내부나 저택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宴樂하기 위한 別業으로 경영하였다. 그러한 樓亭으로 太師公 娛賓亭, 雙明齋, 晉康侯의 茅亭, 又大樓, 孫秘書의 冷泉亭 등이 이인로와 이규보의 글에 나온다.

이러한 權豪들의 草亭 茅亭과 같이 조출한 것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화려한 장식과 장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었다. 이규보는 崔承制의 又大樓記에 '樓 위에 손님 천명이 앉을 수 있고 아래에는 수레 수 백 대를 나란히 놓을 만하며, 새와 짐승을 아로새겨 하늘의 玉樓도 이보다 더하지 않으리라'¹⁹⁾고 하였으니 그 규모의 사치를 짐작할 만하다. 그러한 樓亭의 경영은 당연히 신분과 지위에 상응하여 부귀와 권세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되었다.

* 양지에 있으면 몸이 풀리고 음지에 있으면 몸이 오그라들며 높은 곳에 처하면 상쾌하고 낮은 곳에 처하면 답답한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의 천성으로서 사람마다 가진 것이다. ~그러나 樓亭과 臺榭의 크고 작음과 변화하고 간소함은 또한 사람의 형편에 따라 각기 적당한 정도가 있다. 비록 지위가 같고 존귀함이 통등하더라도 돌이켜 보면 사람들이 추앙하는 바가 다른 것이어서 사람들이 크게 지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짓는다면 사람들이 옳다 하지 않고 모두 지나치다고 한다. 그러나 꿈과 덕이 크고 풍성하며 인망이 만인을 압도하여 일국의 주목을 받는 곳에 처한 사람이라면 비록 아

効亦豈止風化一方已也.

19) 李奎報, 又大樓記, 東文選 卷六十七

上可以坐客百人 下可以方車百乘, 高則橫絕鳥道 大則蔽日月 碧瑤瑩柱 玉易承 跋 陽馬負阿 矯首軒駮 飛禽走獸 因木生姿. 自棟宇以來 未之有也. 按仙經 神仙有玉樓十二, 然世無眼觀者 不知其制度何如 而其中有何等奇觀 嘗以此爲恨. 及觀是樓 雖天之玉樓 想不能侈茲也.

무리 크게 지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사치라 하지 않으며 오히려 좁다고 여긴다.²⁰⁾

누구나 좋은 집에 기차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신분에 걸맞는 것이어야 하고, 권세를 가진 인물이 호사를 다한 장려한 樓亭을 경영하여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이규보의 말은 무신집권 하의 문인들이 當路者를 직접 대하여 할 수 있는 말의 한계를 감안하여야 하겠지만, 樓亭의 건축 규모나 장식이 부귀권호들의 권세를 나타내는 징표가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화려한 樓亭은 현직에 있는 權貴들이 때때로 동료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푸는 곳이요, 또는 현직에서 물러나더라도 현직의 관료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교장이며 한편으로 權貴들의 소일하는 장소였다.

樓亭이 각 지방의 사족들에 의해 경영되는 것은 고려말 조선초기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다. 樓亭이 지방의 사족들에 의하여 경영된다는 것은 부귀권호의 세력이 지방으로 분산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지방 사족의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상승되었음을 뜻하기도 하며, 나아가 사대부 문화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편중적 경향과는 달리 지역적 구심체를 형성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 장인되는 中樞致政公께서 연꽃을 심은 작은 못을 만들고 장차 그 곁에 정자를 지으려고 정자의 이름과 記文을 청하여왔다. ~내 생각컨데 향선생과 빈객이 와서 술잔을 들고 聯句하노라면 兩岸의 맑은 파도와 바람에 흔들리는 잎과 안개서린 꽃이 그림자도 같고 시와도 같을 것이며 蒼顏白髮로 그 속에 얼큰히 취하여 노래부르리니 이는 葛天氏 시절의 백성인가 羲皇 시절의 백성이겠는가.²¹⁾

20) 李奎報, 又大樓記, 東文選 卷六十七

* 夫在陽則舒 在陰則慘 處高則快 處卑則鬱 是人之所以受之天 而固常有者也。~雖然 樓臺觀榭之大小繁簡 亦沿人之勢 而各有當焉。雖於位同貴均者 顧人所屬望則異矣。人心所不當大而大之 則人不以爲可 而皆謂之過矣。至如功豐德鉅 望壓萬人 處一國奔走瞻望之地者 雖極其大也 人不以爲侈 而猶以爲隘也

21) 李穡, 清香亭記, 牧隱文稿 卷五

* 舅氏中樞致政公 植蓮小池 將結亭其側 走書問名與記。穡今病餘 惟眷陵光風霽月是慕 遂取其香遠益清之語 畧述其義。~吾想鄉先生賓客之至 舉酒聯句 晴波兩

*그러나 直之의 마음은 아직도 그치지 않는다. 세상에 뜻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마음이 안타까워 마음을 즐겁게 할 것을 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山野에서 自適하며 아침저녁으로 스스로를 수양하는 것만한 게 없다. 이에 尙州의 支縣으로 淸驪라 하는 곳에 터를 잡고 집을 지어 거처하며 晉處士 陶靖節의 松竹菊 三益의 말을 취하고 뽕나무와 밤나무를 더하여 그 정자를 六益亭이라 스스로 이름하였다. ~直之는 그중에 거처하면서 추위와 더위가 바뀔 때 시절과 사물의 변화를 보고 그 느낌을 따라 시가를 읊조리며 無形의 경지에 들어가고 無味의 맛을 맛볼 것이니, 사철의 경치가 같지 아니하여 닥이 무궁한 것이다. 直之는 비록 세상에 뜻을 얻지 못했지만 그 몸소 얻은 것이 이와 같다.²²⁾

李穡의 淸香亭記와 六益亭記에 나오는 말이다. 전자는 退官한 사대부가 자신의 鄉里로 退居하여 정자를 짓고 소일함이요 후자는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여 급제하지 못한 鄉貢生이 자신의 鄉里로 내려가 정자를 짓고 수양한 경우이다. 이 시대에 과거로 發身하면 지방의 鄉族에서 서울의 士族으로 변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보면 관직에서 물러난 이가 서울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鄉里로 퇴거하여 지방의 凡庸한 무리와 함께 수작한다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 시대 사대부가 지방에 강한 애착을 가졌거나 또는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음을 뜻한다. 더구나 과거에 진출하지 못하고 벼슬을 지내지도 않은 사람이 지방에 정자를 짓고 유유자적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지방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관권의 비호를 받거나 그것에 대응하는 일정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선조에 들어 향리에 樓亭을 경영하는 士大夫 士族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대개 두가지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본

岸 風葉煙蕩 似畫非畫 似詩非詩 蒼頭白髮 酣歌其中 是爲葛天氏之民歟 義皇氏之世歟 心寧而體舒 氣完而守寂 獨運香之濟也 而舅氏之清德 當益遠播 爲子孫之遺矣

22) 李穡, 六益亭記, 牧隱文稿 卷五

*然直之之心猶未已也. 不得於世則 必悶于心 求所以娛心之術 莫如山野之自適 晨昏之自養焉. 於是卜地於尙之支縣 曰淸驪者 作室而居 取晉處士陶靖節 松竹菊 三益之語 益附以桑栗而 自名其亭曰六益~~直之居於其中 觀察署之推移 樂時物之變化 隨感而應 吟爲詩歌 入於無形之形 嚼其無味之味 四時之景不同 而樂亦無窮矣. 直之雖不得於世 而自得於身者 如此

디 향리에서 성장한 인물이 과거로 發身하여 관직에 종사하면서도 생활의 근거지를 향리에 그대로 두고 있다가 관직에서 물러나면 향리로 돌아오는 경우이다. 다음은 일찌기 京族으로 확고한 신분을 확보한 士族이 어떤 계기로 인하여 外鄉이나 妻鄉 등의 연고지를 따라 낙향하여 정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대부의 지방토착은 사대부 계층의 신분적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점차 증대되었지만 한편으로 지방사족이 향권이 강화되고 중앙계의 살벌한 정쟁에서 벗어나고자 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할 것이나 강호와 임첩에로의 歸去來를 노래하는 것은 이 시대의 풍조가 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게 되면 樓亭은 보다 널리 건립된다. 이 시기에 있어서 在鄉士族과 樓亭의 기능은 柳鐸—교수가 다음과 같이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 팽창된 후보사대부들이 자기신분의 허점을 메우고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동족 단결을 위한 혈연의 구심인물로서 조상섬기는 일에 적극 참여하였는 바, 조상을 신앙하는 문집을 간행하는 한편 樓亭을 지어서 내적으로 단합을 위한 중심처로 삼고 외적으로 타문종과 교류하는 사교장이 되도록 하였다. ~더구나 임진병자 양란 이후 증직을 얻은 후보사대부들은 그 신분적 위세와 동족결합을 위한 집요한 후진적 생각은 국가로부터 제약을 받는 서원의 건립보다는 국가의 규제의 굴레를 벗어나고 마음대로 건립할 수 있으며 서원으로서의 구실을 대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기능을 가진 樓亭을 짓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樓亭의 급진적인 발달을 초래했었던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²³⁾

樓亭이 遊觀宴息의 공간에서 나아가 讀書講學의 장소로 사용된 것은 한가한 사대부의 소일거리가 詩酒吟詠인 때문이기도 하였으나 閑居靜養을 소중히 여기는 성리학의 기풍이 만연되면서 화려하고 사치스런 宴樂을 溫柔敦厚한 미풍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시각이 생겨난 것도 중요한 몫을 하였다. 더구나 조선후기에 와서 鄉班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신분이 세습적인 특권으로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게됨에 따라 각 가문마다 그 신분을 증명하고 지탱하는데 중요한 선조를 내세우기 위해 그 기념

23) 柳鐸一, 樓亭과 李朝文化 釜大新聞 1975.1.21부산대학교

물로서 樓亭이 건립되었던 것이다.

*眞巖書堂은 民등의 先祖 警漢선생이 만년에 은거하여 낚시하던 곳입니다. 民등의 선조는 宣廟朝 대신으로 壬亂에 의병에 떨쳐나서고 昏朝에 벼슬을 내던져서 盟府에서 그 공훈을 위로한 자취와 유림에서의 사업은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서 지금까지도 鄉邦의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바이며 章甫들이 존경하는 터입니다. 이곳 眞巖 한 구역은 水石의 승취가 제법 있어서 만년에 소요하시는 志趣를 실로 여기에 붙였던 것입니다. ~불초 殘孫들이 先烈를 선양하고 儒宮에 올려 榮禮의 의전을 갖도록 할 수는 없었지만 다만 한 구역 先代의 유적에다 몇 간의 亭榭를 경영하여 항상 그 리워하고 사모하는 장소로 삼아 춘추로 송축하며 자손들이 학업을 닦는 곳으로 삼아서 선대의 유업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남기신 향기를 사라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간신히 경영하고 수선하여 영구히 가고자 하는 것은 등한한 齋舍와는 현격히 다른 것입니다.²¹⁾

宣朝 戊子 式年試에 급제하여 典籍兼中學校教授를 지내고 壬亂의 義旅에 참여하여 省峴察訪 新寧縣監 등을 역임하고 임란 뒤에 蔚州判官 永川郡守를 거쳐 昌原府使로 있다가 광해군 사년에 관직을 버리고 은퇴한 警漢 孫起陽의 후손이 그 선조의 은거하던 곳에 亭榭를 건립하고 그곳을 수호하는 승려의 免役을 소청하여 官府에 올린 글의 부분이다. 七灘亭이라고 명명된 이 정사는 뒤에 七灘書院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講堂과 祠宇를 갖추었다가 서원철폐령 이후 정자로 복귀하였는데, 글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 정사를 경영한 목적이 선조의 유적을 영구히 보존하여 추모하며 그곳을 자손들이 글을 읽고 학업을 닦는 장소로 삼겠다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와서 이와 같이 祖先을 추모하거나 先賢의 유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지는 樓亭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鄉村社會에서 鄉邦의

21) 密陽 七灘亭, 本孫呈本府請除役僧狀, 七灘誌 卷一

* 伏以眞巖書堂 卽民等先祖警漢先生 晩年漁釣之所也. 民等先祖 以宣廟朝大臣 舊義於壬亂, 投效於昏朝 盟府之勳勞可稽 而儒林之事業特著 至今鄉邦之所欽仰 而章甫之所矚式矣. 顯茲眞巖一區 稍有水石幽勝 故暮境盤旋之趣 實寓於斯 而詩章遺悶之間 輒以七巖瀨 自名則 其雅意可想 而古壁遺蹟 尙今有杖履之餘痕矣. 不肖殘孫 無以闡揚先烈 以躋夫儒宮膾炙之典 而獨於一畝宛裘 營立數間亭榭 仍以爲築塲篤慕之所 而春秋頌詠 遂成子孫肄業之地 庶其乎堂構勿墜 而遺觀未泯即其所以辛勤營緝 爲永久 遵隨之道者 蓋與等閑齋舍 不啻懸矣.

세력이 세습적인 신분으로 고착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분은 본디 개개인의 재능과 공훈 학식의 성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만 門閥이나 師友淵源, 혼인과 出入의 수준에 따라 가늠되기도 하였기에 가문의 역사 중에서 신분적 토대를 공고하고 분명하게 향상시킨 인물을 내세워 그를 先賢으로 추모하고 그 유적을 유지 보존함으로써 사대부로서의 체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누정을 세우에는 누구를 추모한다는 표방을 내걸고, 거기에서 자손들의 讀書講學은 물론 門中の 대소 집회를 열어 가문의 실세를 강화하고 간혹 향리의 유력자를 招集하여 詩會나 宴樂을 베풀어서 교유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3. 樓亭文學의 내용

3-1 樓亭文學의 概觀

樓亭文學에 대한 몇 안되는 논의들은 대개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江潮 山林의 문학활동의 産室로서 樓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학적 교유를 이른바 ‘歌壇’ 또는 ‘詩壇’으로 이름하여 논의하였으니, 홍재휴교수의 ‘石門亭題詠詩歌考’²⁵⁾나 박준규교수의 ‘息影亭의 創建과 息影亭記’²⁶⁾, ‘羅州地方 樓亭題詠調查研究’²⁷⁾와 같은 것이 그것ियो. 다음으로 樓亭記詩에 나타난 문학적 특성을 개괄적으로 논의한 것이 있었으니 김석하교수의 ‘樓亭記小考’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²⁸⁾

이와는 별도로 樓亭을 逸世의 정취를 노래하는 강호산림의 處士文學의 주요한 무대로서 파악하는 지적이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제 문화창조의 중심이 중앙의 관학으로

25) 洪在休, 石門亭題詠詩歌考, 曉星女大論文集 1978, 효성여자대학

26) 朴俊圭, 息影亭의 창건과 息影亭記, 湖南文化研究14,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85.

27) 朴俊圭, 羅州地方 樓亭題詠調查研究(호남문화연구소, 羅州地方樓亭文化的 綜合的研究, 1988)

28) 金錫夏, 樓亭記 小考, 국어국문학62, 63, 국어국문학회 1973

부터 지방의 사림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 새로운 문화의 양대 구심점으로 서원과 樓亭이 발달하였던 바 곧 서원은 도학의 전당이고 樓亭은 문학예술의 산실이다. ~지방출신의 문인학자들이 자기고향 근처에 설치한 정자의 경우 대개 ‘隱’이 이 시대의 풍습을 이룬 고려말에 비로소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이 지방 사람들 사이에 일반화되고 주요한 기능을 하게 된 것은 ‘隱’을 생활로서 실천한 이후 대략 이 시대(조선전기)부터이다. 은거생활의 취미로서 필요했던 것이다. 향리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전장 근처의 승경에다 정자를 세우고 때로 시주로 모여 놀며 흥이 오르면 노래부르는 風韻餘事—江湖歌道가 성행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逸世의 정취를 국문의 노래와 한문의 詩와 記文으로 지어 부르고 읊은 처사적 문학이 본격적으로 성립된 것이다.²⁹⁾

임형택 교수의 이 간략한 서술에는 樓亭文學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으나, 아마도 樓亭에서의 문학활동을 처사적 문학의 한 특징적 배경으로 파악하려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상 이러한 지적이 樓亭을 중심으로 한 문학활동에 관심을 두게 되는 근원적인 동기인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樓亭을 배경으로 한 문학적 교유나, 樓亭에 揭板될 詩文의 성격을 考究하는 것만으로는 樓亭文學의 개념이 선명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樓亭에는 그 건물의 창건 중수의 유래를 알리고 추념하기 위해 記와 상량문을 名士에게 받아 판에 새겨 걸어두며, 그곳을 거쳐간 명사와 祖先을 기념하기 위해 題詠을 걸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사적과 인물의 風韻을 기념하는 樓亭文化의 한 특질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문학의 의미를 천명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樓亭文學의 개념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樓亭文學은 우선 樓亭空間의 특성과 사대부 문학의 한 갈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樓亭이라는 공간은 公館의 부속건물로서 관료와 사대부 계층이 공유하는 遊觀宴息의 장소이자 일정한 신분과 경제적 이유를 가진 계층이 사적인 필요—優遊玩賞, 對客接賓, 讀書講學, 尙賢崇祖, 鄉黨公會 등을 위해 경영하는 遊休施設이었다. 조선조의 지방에 은거한 사족들의 樓亭만을 중심으로 하여 말한다면 그러한 樓亭

29) 林榮澤, 韓國文學史의 視角 p392, 창작과비평사 1984.

은 처사들의 소일하는 장소요, 서울의 富貴權豪의 第宅과 官府의 樓亭을 두고 말하자면 그것은 또한 官人들이 宴樂하는 곳이다. 조선 중기 이후 지방의 은거사림에 의하여 수많은 樓亭이 그들의 향리에 경영되었기는 하지만, 여전히 官府의 樓亭이나 사찰 학교의 樓亭과 같이 사대부들의 휴식공간으로 공유되는 樓亭들이 곳곳에 경영되어서 그곳에서의 문학활동들이 사적인 樓亭에서의 문학활동에 비견될 만큼 많다.

그러므로 樓亭文學은 은거한 처사들만의 문학으로 단언하여서는 곤란하다. 처사들의 사적인 樓亭생활을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겠지만 樓亭에서의 풍류와 정취를 ‘歸去來한 士類들’만의 문학으로 한정하게 되면, 그것이 사대부 일반이 가졌던 풍류의 정취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 문학생산의 조건으로서 樓亭이라는 공간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그러한 조건 하에 분비된 문학의 특징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樓亭文學이라는 개념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사대부들의 문학활동이란 사대부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각기 상이한 점이 있겠지만, 그들의 관심이 樓亭이라는 휴식공간의 脫俗的 정취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역사와 사회, 자연과 일상생활의 세세한 국면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것이다. 樓亭을 대상으로 한 詩文에서는 樓亭의 風流를 노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역사 인물을 노래하는 시문에서는 風節과 氣概를 강개한 어조로 수식하기도 하며, 民生과 時政을 풍자하는 데는 강한 현실감각이 번득이고, 개인적인 회고나 감흥을 수식하는 데는 인생에 대한 安分自足的인 관조나 회한의 서정이 나타나기도 하며, 자연의 景物을 노래하는 데는 심리학적 觀物의 관념적 사고가 복제되거나 物象의 미묘하고 세세한 정황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樓亭文學은 사대부들의 樓亭에서의 遊觀宴息하는 생활의 의미를 형상화한 문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樓亭을 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자 행위나 樓亭에서의 휴양과 宴樂의 정취를 서술한 것이 樓亭文學의 주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과거의 문헌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樓亭文學 연구의 자료로 떠올릴 수 있다.

첫째, 樓亭記文 上樞文 樓亭遺墟碑記 등의 實記와, 樓亭에서의 講會

詩會 同遊錄 등과 같은 산문들이다.

記文은 본디 敘事를 주로 하는 문체로서, 樓亭記에는 樓亭 營建의 경과와 樓亭 주변의 지형과 景觀을 서술하고, 樓亭經營의 의의, 후손과 후인들에 대한 鑑誡, 樓亭과 관련한 인물에 대한 술회 등의 議論이 추가되어 있어서 樓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樓亭記文은 대개 唐宋八家나 朱熹의 記文體에서 依倣한 것으로 심지어 議論까지 그대로 蹈襲한 것이 적지 않지만 개중에는 樓亭의 경관과 의미를 독특하게 부여하는 것이 없지는 않다. 다른 종류의 건축물에도 修建의 경과나 堂號를 설명하기 위해 記文을 쓰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 樓亭記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건축과 記述의 의의가 樓亭空間의 그것과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간혹 蟹樓記와 같은 전혀 허구적인 樓亭記가 창작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대개 科題의 功令文으로서 樓亭의 장려한 위용과 樓亭에서의 宴樂을 환상적으로 그린 것이다.

아주 簡率한 건축물이 아니라면 대개 上樑할 때 上樑文을 써서 올려 두는데, 그 글은 駢體文으로 엄정한 격식을 갖추면서도 화려한 修辭를 위주로 하여 사실성이 결여되지만, 그 속에는 일종의 祝禱와 기원을 담고 있어서 건물의 영건에 따르는 기원의 내용을 알 수 있다. 樓亭의 上樑文도 그러한 의미에서 참고할 만하다. 간혹 문사가 재능을 과시하거나 科題로 蟹樓上樑文과 같은 허구적인 글을 지은 것을 볼 수 있다.

樓亭에서의 契會 詩會 講會 鄉飲禮 등의 집단적인 행사를 행하거나 유람하며 남긴 기록들은 그 집회나 遊觀과 관련한 개인적인 회포나 집단의 형태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살펴볼 만하다. 이런 종류의 글로는 金剛孫의 晉陽修禊序, 李賢輔의 愛日堂戲歡錄, 趙任道の 合江亭泛舟同遊記, 丁若鏞의 再遊麻石樓記, 柳徽文의 遊嶺南樓記와 같이 잡다한 문체로 서술되는데, 樓亭에서 연락하는 사대부의 생활의 실상을 알려주는 자료들이다.

둘째로 樓亭과 관련한 詩, 賦, 歌辭와 같은 글들을 들 수 있다.

樓亭과 관련한 詩 중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樓亭경영의 주체가 樓亭에 寓意하여 술회하는 題詠이다. 여기에는 대개 樓亭을 경영하고 遊觀宴息하는 작자의 심경이 토로되어 있다. 樓亭경영의 주체나 친분이 있는 名士가 제영한 것을 原韻으로 하여 후손이나 후인들이 次韻

한 시에서는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회고적 서정이 서술되므로 추모 기념하고 繼述하는 유가적 이념의 형상을 살펴볼 수 있다. 次韻은 대개 樓亭경영자에 대한 의례적인 酬唱이어서 原韻의 내용을 따르거나 부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차운을 한 시라 할 지라도 반드시 원운의 내용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官府 경영의 樓亭題詠에는 그 고을의 경승과 풍속에 대하여 간략하게 압축하여 형용한 것이 있으므로 官人에게 있어서 遊觀의 의미가 특별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樓亭을 거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심상하게 읊은 詩에는 旅路의 감회라든지 경관에 대한 감흥, 樓亭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회고, 宴樂의 흥취와 이에 따른 송별 酬唱의 서정 등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모두 樓亭에서의 遊觀이나 宴息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樓亭詩 가운데 특히 集景詩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蕭湘八景詩와 武夷九曲歌에서 유래한 集景詩는 樓亭과 臺觀 뿐만 아니라 일정한 郡縣이나 지역을 놓고 거기서 볼 수 있는 자연과 인문의 勝致를 八景 十景 十二景 등으로 나열한 것으로서 사대부들이 그들 주변을 둘러싼 자연에 대하여 인식한 일정한 미적 범주를 보여주는 것이다.

金宗直의 擬登樓賦나 宋純의 俛仰亭歌와 같은 것은 樓亭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장소에 의탁하여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것이나, 작자미상의 舍江亭船遊歌와 같은 서민가사는 사대부의 樓亭의 宴樂을 민인의 입장에서 비판하였다는데서 주목되는 글이다.

樓亭文學으로 처리될 이러한 자료들이 處士, 士林이나 또는 官閣文人들의 문학활동에서 차지하는 분량은 상당하지만, 그 내용들이 그렇게 다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樓亭이라는 공간에서의 문학활동에 치열한 반성적 사고를 반영하는 작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가 遊觀하고 宴息하는 가운데 여흥으로 하는 吟風弄月的 지적 유희를 통하여 습관적으로 부제 분비된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樓亭이라는 문학생산의 조건이 文學의 내용을 미리 한정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樓亭記文의 분석 결과 드러난 與民同樂, 風詠宴樂, 觀物

遊覽, 鄉居自樂, 保守記念 등 다섯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이 다섯가지는 사실상 樓亭文學의 일반적인 내용의 모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2 與民同樂의 理念

樓亭은 遊觀宴息의 장소이기에 樓亭文學에는 의례히 樓亭에서의 휴식과 거기서 즐기는 흥취를 서술한다. 휴식의 여흥, 그것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인간에게 의례히 있을 慰樂이지만 秉燭夜遊의 질탕한 逸樂은 자칫하면 부귀영화의 사치스런 치장이거나 퇴폐적이고 개인적인 향락으로 타락하기 십상이다. 더구나 정치와 비교적 거리가 먼 향리의 사족이 아닌 정사를 담당하는 군왕이나 當路의 사대부들이 그러한 의식에 함몰되어 벗어나지 못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君王이나 官府에서 경영하는 樓亭에 대한 詩文에는 그런 향락에 대한 경계나 충고가 의례히 표현된다.

* 誰勸君王入酒鄉 君臣을 酒鄉으로 들게 한 이 누구던가
 不知禍自在蕭牆 禍가 절로 담장결에 와 있음을 몰랐던가
 酣歌不闕瓊樓上 玉樓 위에 취한 노래 채 그치지 아니하여
 腥血交流宴途傍 오가던 길 가에 피 비리께 흘렀었네
 楊帝汴河秋冷落 汴河의 隋楊帝는 냉랭한 가을이요
 明皇蜀道兩淒涼 蜀道の 明皇도 모두 다 처량해라
 當時此恨無人識 당시의 이런 한을 아는 이 없겠기에
 滿目溪山淚兩行 산과 계곡 바라보며 두줄 눈물 흘리노라³⁰⁾

任奎라는 사람이 고려조 예종이 宴樂하던 延福亭 옛터를 지나며 읊은 詩이다. 高樓巨閣의 일탕한 연락에 빠져서 마침내 國破身亡의 지경에 이르게 됨을 경계한 것이다.

그러나 王公이나 官人이 궁궐과 官府에 樓亭을 경영하고 遊觀의 樂을 즐기는 것이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樂이 적절히 절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遊樂의 일정한 규범이나 이상적인 行態가 이러한 중

30) 任奎, 過延福亭詩, 東文選 卷十二

류의 樓亭의 記文에 서술된다.

*대저 樓觀을 짓는 것은 遊觀의 樂을 위해서가 아님이 없다. 그리하여 樓觀의 공사가 그 分限을 잃고 사치를 지극하게 되며 觀遊의 樂이 그 도를 지나쳐서 荒淫하게 되며, 그로써 패망에 이르는 자 수없이 많이 있다. ~이 樓에 오르는 자가 歌舞를 비축하고 妓女를 거두어 두는 것을 일삼고 絲竹의 오락을 좋아하여 耳目의 욕망을 거리낌없이 행하여 올바른 본심을 잃어버린다면 이 樓閣이름의 본디 취지가 아니리라. 바야흐로 밤이 고요하여 온갖 움직임이 쉬고 밝은 달이 떠오르며 서늘한 바람이 서서히 불어올 때 푸른 산과 맑은 물을 마주하여 강산의 밖으로 세상생각을 버리고 우주의 사이에 몸을 맡겨서 光風霽月과 같이 가슴을 깨끗하게 한다면 樓閣을 이름지은 뜻을 거의 얻으리라.³¹⁾

安魯生이 태종 병술년(서기1406년)에 쓴 陝川 澄心樓記의 한 구절이다. 이 시기 뿐만이 아니라 樓亭은 사실상 妓樂歌舞의 宴樂을 즐기는 장소로 흔히 사용되었고, 그러한 宴樂을 노래한 시가도 적지 아니하다. 비록 경계의 대상으로 기술되었지만 歌舞妓樂과, 樓亭의 경관을 보고 光風霽月의 광활한 기상을 기르는 雅趣가 樓亭의 즐거움인데, 使客을 접대해야 하는 지방관으로서는 歌舞飲酒가 따르는 집단적인 妓樂이 관례로 공식화 되어 있으니 다만 그에 대한 일정한 절제를 요구하고, 그 樓亭의 주인으로서 관인자신이 樓亭에서 얻을 개인적인 흥취를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樓亭의 宴樂에 대한 경계는 특히 王公이나 官人에게 대하여 그들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여 與民同樂의 이상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강조된다.

*조정의 일을 마치고 淸燕의 여가에 간혹 발걸음을 옮겨 法宮에 오르시어 儀仗을 일체 물리시고 光武帝와 같이 모자를 빗겨쓰고 정신과 생각을 맑게 하시어 道를 수양하시고, 분별이 화창하여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면 乾坤의 生物之心에 감동하시어 병들고 외로운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31) 安魯生, 陝川澄心樓記, 嶺南誌 卷六十二

.. *大抵樓觀之作 莫不以遊觀之樂而構之. 是以樓觀之作 失其制而 奢侈極焉. 觀遊之樂 過其度而 荒淫繼焉. 以至喪敗者 比比有之矣. ~若登此樓者 以藏歌舞貯妓女爲務 悅絲竹之娛 縱耳目之所欲 失其本心之正則 非名樓之旨也.

끓주림이 없겠는가 하고 생각하시며, 薰風이 남에서 불고 뜨거운 햇빛이 공중에 이글거리면 帝舜의 解慍歌를 읊으시며 일만 골짜기의 서늘한 그늘을 어떻게 고르게 베풀어 줄 것인가를 생각하시며, 누런 낙엽이 가을을 알리고 온갖 果穀을 추수하게 되면 우리 백성의 租稅가 과도하게 거두어 저서는 안될 것을 생각하시고, 하얀 눈이 길에 흩뿌리고 싸늘한 냉기가 외투를 파고들면 우리 백성들의 헐벗고 굶주리는데 더 고생시켜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하신다면 무릇 사시의 경치가 한번 御眼을 거쳐 모두 정치를 베풀고 仁政을 시행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³²⁾

*대저 樓觀의 그 勝致만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오 與民同樂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樓觀을 짓고 樓觀을 완상하는 것은 반드시 勝子京의 政通人和와 王弘仲의 令修人得과 范文正의 先憂後樂과 같이 된 연후에야 그 樂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니 혼자 즐기는 것은 樂이 아니다.³³⁾

전자는 金宗直(1431~1492)이 창덕궁 안에 건축된 環翠亭의 기문에 기록한 말이요, 후자는 河受一(1553~1612)의 嶺南樓記에 나오는 말이다. 일국의 정치를 담당하는 국왕의 遊觀하는 樂이 그 心神을 靜養하는데 머물러서는 아니되며 경물의 변화를 보고 백성의 처지를 미루어 생각하며 仁政을 베푸는 바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단지 人君에 대한 간절한 諷諫의 의미에서 그치지 아니한다. 그것은 河松亭이 군현의 수령에게 요구하고 있는 연원이 오래된 유가적 與民同樂의 이상이다.

정치를 담당하는 이에게 與民同樂이란 孟子가 논설하였듯이 군주나 권력자의 자기도취적 향락에 매몰되어 民生을 도외시키고 流連荒忘하여서는 아니되며, 民生을 위한 治道를 우선하여 만민이 다 자신의 처지를 기뻐하여 大同의 지경에 나아가도록 하고서 그러한 태평성대를 함께 즐

32) 金宗直, 昌慶宮環翠亭記, 佔畢齋文集 卷二

*退朝清讌之餘 往往布趾以登法宮 仗一切屏去 服夏侯之衣 岸光武之幘 怡神澄慮 與道爲謀. 至若青陽和暢草木敷榮則 感乾坤生物之仁 以疲癯鰥寡 何以均施, 薰風南來 畏景燦空則 詠帝舜解慍之操 而萬壑清陰 何以均施. 黃落在候 萬實告成則 吾民什一之斂不可過制也 滕六屑徑 沍氣襲裘則曰吾民皸癩之饑 不可更勞也. 凡四時之景 一經于宸眼者 蓋取以爲發政施仁之資.

33) 河受一, 嶺南樓記, 松亭集 卷四

*大抵 凡樓觀之賞 不獨賞其勝 所貴能與民同樂耳. 是以 作樓觀賞樓觀 記樓觀者 必若勝子京之政通人和 王弘中之令修人得 范文正之先憂後樂 然後可以盡其樂 獨樂非樂也.

긴다는 말이다. 岳陽樓記에 나오는 政通人和나 先憂後樂의 말도 정치가 잘 다스려져서 사람들이 화목하게 된 다음에 樓亭을 짓고 즐길 수 있는 것이며, 천하의 근심을 먼저 해결하여 천하의 사람들이 다 즐거워한 다음에 참다운 樂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사대부의 본연의 자세라는 말이다.

이러한 與民同樂의 이상이 官府의 樓亭과 관련한 詩文에서 강조되는 것은 지방 수령의 위치가 남다르기 때문이요 또 그 樓亭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기 때문인데, 관부 樓亭의 記文에는 의례히 官人의 樓亭經營에 대한 경계와 爲政者의 폐단에 대한 충고, 樓亭에서의 宴樂에 대한 鑑戒를 덧붙이기 마련이다.

爲政者로서 樓亭을 경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선 토목공역의 부담을 민인에게 강요하게 되는 폐단이나, 樓亭에서의 宴樂 때문에 民怨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 또 관인이 자신의 책무를 망각하고 가무음주의 연락에 탐닉하는 것 등으로 대개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서 그 부당함이 지적된다.

* 지금의 사대부들은 州郡의 수령으로 나가서 도로를 개설하여 여행객의 입에 칭송되기를 노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樓亭과 臺榭를 크게 일으켜서 빈객들의 칭찬을 받으려 하여, 백성을 부리는 것이 중대한 일임을 전혀 알지 못한다. 南門의 흥폐가 자잘한 일일 것 같은데 '새로 지었다'라고 特書한 데서 성인이 백성을 근심한 뜻을 볼 수 있다. 樓는 없어도 되지만 백성은 없어서 아니되고 臺는 낮아도 되지만 백성을 괴롭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쇠를 녹일 듯한 더위에 타오르는 햇빛이 치열하다면 나의 부채를 휘둘러서 서늘하게 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옛 亭子터를 늘이고 확대하여 높고 화려하기를 일삼아서 우리 백성의 재력을 고갈시키고 우리 백성의 힘을 곤핍하게 하는 이들은 유독 무슨 심사라 하겠는가³⁴⁾

* 산은 仁者의 즐기는 바요 仁은 백성을 다스림에 가장 절실한 것이다.

34) 金守溫, 民和樓記, 拭疣集 卷二

* 今之士大夫 出爲州郡之守 不開治道路 以俚行旅之口則 必大起樓臺亭榭 以要譽於賓客 殊不知役民重事也. 南門興廢 似爲微末 特書曰新作則 聖人憂民之意 可見矣. 樓可無矣 而民不可無 臺可低矣 而民不可勞. 流金燦玉 炎景熾矣 揮吾扇 亦可以涼 必爲之增舊址 擴新基 務爲崇侈 使吾民之財已竭 而吾民之力已困者 亦獨何心哉.

이 뜻을 미루어 나간다면 수령을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러나 수령된 자는 백성을 돌보는 것이 그 마음에 걸리고 문서를 처리하는 일이 일신으로 집중되니 비록 산이 있다한들 어느 거울에 즐기겠는가. 그것도 잘하지 못하면서 얼마다 한적함을 탐하여 王子猷처럼 拄笏看山한다면 직분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³⁵⁾

金守溫(1409~1481)의 民和樓記와 鄭忠彬의 慈仁 樂山樓記에 나오는 말이다. 樓亭을 경영하는 것이 민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가나 반드시 유익한 일이 아닌데도 지방의 수령들이 土木의 거대한 공역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으로 가시적인 치적을 과시하여 빈객과 行旅로 오가는 사대부들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한 지방 수령들의 잘못된 행정으로써 與民同樂의 이상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그리고 樓亭의 遊樂을 遊者の 閑情을 즐기는 雅趣라 하여 관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직무에 소홀하는 것은 曠職, 즉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관인의 遊樂에 대한 일정한 鑑誡를 적어 걸어둠으로써 위정자의 반성의 자료가 되도록 한다는 樓亭記文의 의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계의 말은 사실상 지방관아에서의 工役에 대하여 民力을 수시로 동원하는 폐단이 있고, 재정을 궁핍하게 하므로 각 도 경영의 통제를 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던 데도 연유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수령의 봉록을 털어 경영하였다’라느니, ‘한 사람의 민정도 동원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즐겨 와서 부역하였다.’는 등의 말로 樓亭경영에 무리가 없었음을 애써 변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樓亭경영의 폐단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관부 樓亭記에 종종 등장하는 주제는 수령의 暴政에 대한 경계의 말이다.

* 국가를 民을 명맥으로 하여 관리에게 그것을 맡기는데 民은 농사가 아니면 살 수 없다. 관리의 본색은 무엇인가, 농민에게 있다. 세상에 관리노릇을 잘 안다는 자가 남김없이 굶어 모으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 여기고 상치난 백성을 헤집어서 고혈을 빼는 것을 공으로 삼아서, 혹 管絃의 음

35) 鄭忠彬, 慈仁 樂山樓記, 嶠南誌 卷六

* 山爲仁者所樂 而仁於治民最切 推斯義以往 於爲宰乎何有. 然爲宰者 芻牧關其心 簿牒費其身 雖有山 固何暇樂爲. 厥或不能 事事惟閑適是耽 如王子猷不記馬數 而拄笏看山則 又不幾於曠職之刺乎.

악과 妓女를 데리고 날마다 江山의 臺榭로 다니기도 하는데 그 田野를 보면 풀이 무성한데도 김매지 아니하고 백성은 많은 데도 밭갈 줄을 모르고 수확할 줄도 모르며 소칠 줄도 모른다. 끝내는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고 길거리에 굶어죽는 이가 있게 되니 그에게 백성을 다스리게 한들 무엇하랴³⁶⁾

申維翰(1681~)의 軍威峻喜樓記의 한 부분이다. 관리가 樓亭의 遊樂을 즐기면서 민생을 돌보지 아니한다면 관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면에는, 관리들이 遊樂을 위해 民人의 고향을 강요하는 苛斂誅求가 종종 자행되고 있었음을 온건하게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官府의 樓亭記文에서 의례히 나타나는 주제로서 與民同樂의 이상은 官人으로서의 사대부의 책무를 일깨워 주는 중요한 이념임에는 틀림없었지만 신분제 사회제도 아래에서 그것이 일반의 민중에게 공유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與民同樂은 조선 사회를 지탱하는 양반 사대부의 주요한 정치적 구호로 여전히 존속하였지만, 樓亭에서의 태평한 연락에 대하는 민인의 태도는 전혀 시각을 달리하여 나타났다.

* 求景가세 求景가세 合江亭에 求景가세 時維九月 念三日에 吉日인가 佳節인가 觀風察俗 우리巡相 이날에 般遊하니 千秋聖節 질겨운들 蒼梧暮雲 悲感할사 北闕分憂 夢外事나 南州民壤이 아닌가 飲酒流連 宗을시고 秋事方劇 顧念하랴 劉石塞江 하울적에 一月工程 드단말가 鑿山通道 하울적에 移民塚墓 하는구나 呼冤하는 저鬼神아 風景의 닷이로다 범갓흔 우리巡相 生心도 怨望하랴 廚府帳幕 온갖 差備 밤낮으로 準備하네 銀鱗 玉尺 나가 내어 舟中에 膾烹하고 凝香閣 宿所하고 세여을 배를 탄다. 汎汎中流 내려 가니 江山도 좋을시고 巡相의 風情이요 百姓의 怨讐로다. 人間 남은 厄運 水國에 미쳤도다 五里밭 期會亭幕의 浪藉할사 酒肉이야 列邑官吏 격기로다 浚民膏澤 아니신가 茶啜床의 壽八蓮은 鄉曲愚民 初見이라 奇異하고 繁華할사 一床百金 드단말가 民怨은 徹天이요 風樂은 動地하네.³⁷⁾

전라도 어느 지방의 合江亭船遊歌라 이름한 작가를 알 수 없는 가사

36) 申維翰, 軍威峻喜樓記, 嶺南誌 卷三十四

* 國以民命脈 而寄之吏. 民非稼穡 不可活, 吏道之本 何哉. 在農民矣. 世之深於吏者 髮節毛刷以爲能 爬瘡得血以爲功. 或以管絃娥霓 日沾沾於江山臺榭 而視其田野則 土膏而不墾 田蕪而不鋤 民多菜色 路有餓骨 將使牧之謂何.

37) 필자미상, 合江亭歌, 金文基 庶民歌辭研究 pp. 306~309 형실출판사 1979.

의 서두이다. 이 가사는 官人들의 樓亭에서의 宴樂의 실상을 民人의 입장에서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였다는 데 주목해 볼만한 작품이다. 가사의 내용에서 보듯 권세 있는 方伯의 한번 船遊에 수없는 民弊가 따르게 되고 한 사람의 호사가 지역주민 전체를 소동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행여 원성도 낼 수 없는 민인들로서는 官祿과 功名 좋은 방백의 善政으로 좋은 시절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治道하라 供饋하라 戶斂을 거두어 差飯하는 등등으로 각색 色吏의 가혹한 독촉이나 없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 선유의 흥에 겨워 妓樂을 잡히고 도도한 酒興으로 시부를 읊조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들 나름의 자기도취적 흥얼거림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樓亭의 詩文에는 여가를 즐기는 휴식 공간에서의 宴樂이 노래된다. 특히 官府 경영의 樓亭의 記文에서는 그러한 宴樂이 與民同樂의 이상으로 구가되어야 한다고 강조 되었다. 그러한 연표가 과연 무엇을 의도한 진술이었는데 대하여는 좀더 상세한 검토를 하여야 하겠지만 우선 나타나는 바로는 사대부 신분 계층 내의 자기만족적인 이상에 그치고 있었다는 것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3-3 鄉居自樂의 가치

公館의 부속건물로서의 樓亭이 관료나 사대부 계층 일반에게 共有되는 宴樂의 장소로서 그러한 樓亭의 詩文에 與民同樂의 유가정치의 이상이 특징적으로 표방된다면, 양반 사대부 계층이 自家의 私有物로 경영하는 樓亭의 詩文에서는 우선적으로 鄉居自樂의 가치가 제시된다. 그러한 현상은 양반 사대부 계층의 주거지의 지방 분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高麗朝만 하더라도 지방에 대규모의 농장을 소유한 호족들의 생활근거는 서울과 近畿地方에 집중되어 있었고 鄉貢출신으로 새로이 신분을 획득한 官人들은 곧 그들의 생활근거를 서울지방으로 옮겨 지방에 대대로 世居하며 鄉職을 담당하던 鄉族과 구별되어 京族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그러기에 고려조에 관료로 출신한 인물들에게 鄉里放逐이란 신분의 하락을 의미하는 형벌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

데 고려말 조선초에 이르러서는 서울 주변의 확고한 신분적 토대를 가진 京族들이 外鄉 妻鄉 등의 인연을 따라 지방으로 낙향하고, 새로이 과거를 통하여 지방에서 發身한 인물들도 그들의 생활근거지를 서울로 옮기지 아니하고 鄉里에 그대로 둔채 관직에 나갔다가 관직에서 은퇴하면 다시 향리로 돌아와 노년을 보내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하여 대략 15세기 중엽이후 사대부들은 대개 향리에서 어린시절을 보내며 수학하여 登科 發身하면 벼슬에 올라 서울과 지방으로 몸은 분주하게 다니지만 그들의 부모처자 가솔들은 여전히 향리에 남아 世傳의 가업을 지키고 보전하며, 瓜滿으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또는 覲親의 말미를 받으면 향리로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벼슬에 나오기도 하고 벼슬에서 영영 물러나면 향리의 전장으로 돌아가 鄉先生으로 終年하였다. 內職에 종사하거나 과거와 학업을 위하여 서울에 별도로 京第를 두기도 하고, 지방관아의 관사에 간혹 가솔을 거느리고 가기도 하지만 그들의 생활근거는 여전히 향리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 사대부들 특히 향리에서 출신한 官人들에게 있어서 향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요, 벼슬하지 않은 지방의 士族들에게는 영달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일념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안주할 수 있는 樂地였다. 더구나 관직에서 물러나 退休의 여가를 소요하며 樂을 붙일 樓亭이라도 마련된다면 그러한 退休와 鄉居의 樂을 記文이나 제영으로 구가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我有宣城負郭田 나에게 고향 성곽 전장이 있는지라
 一區泉石老將專 한 구역 泉石들을 늙어서 차지하리
 登公亭上情尤發 登公亭 위에서는 더욱 더 정이겨워
 鷄肋鷓鴣盟豈兩全 鷄肋과 갈매기를 어찌 둘다 兼全하리.

少年爭自說歸田 젊을 적엔 歸田한다 다투어 말하지만
 晚歲依違志不專 늙도록 미분 것은 뜻이 서지 않기 때문
 白首江亭兄及弟 江亭의 흰 머리결 형이오 동생이니
 宦成名節一家專 벼슬과 名節 이름 한 집안에 온전했네³⁸⁾

雙巖 李賢輔(1467~1555)가 벼슬에서 은퇴하여 歸來亭을 짓고 自樂하

38) 李賢輔, 歸來亭詩, 雙巖集 卷一